

복구, 무주공산에 후보 9명 난립...광주 최대 격전지 부상

광주 복구청장

민주당 8명·진보당 1명 출사표
현 구청장 불출마로 판세 요동
경선 가산점·컷오프 방식 변수



광주시 복구가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현 구청장의 불출마 선언에 따라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만 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며 일찌감치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야권 대안 세력까지 가세하며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

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복구청장 선거는 청년과 여성, 장애인, 경제인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후보군이 형성되면서 민주당 내 경선부터 판세를 가늠하기 힘든 안개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의 경선 가산점 적용 여부와 후보 압축 방식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여 입지자들 사이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행정 혁신과 도시재생을 전면에 내세운 신진 세력들의 공세도 매섭다.

김대원 전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실장은 복구청사의 광주역 인근 신축 이전과 기존 부지 내 국회 도서관 광주분관 유치라는 청사진을 내놨다.

지역 경제와 노동 현장을 누비는 전문가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김동찬 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 등을 지낸 이력을 살려 '일자리 구청장'을 자처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네

트워크와 의정 경험을 앞세운 후보들이 선두권을 형성하며 기선 제압에 나서고 있다.

문상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은 광주역을 중심으로 한 AI·모빌리티 집적단지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내걸고 '준비된 구청장'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재선 시의원 출신의 노련함을 바탕으로 광주역 남북 관통 도로 개설 등 7대 구정 방향을 제시하며 세를 넓히고 있다.

시의회 역사상 첫 여성 의장을 지낸 신수정 시의원은 '최초의 여성 구청장'이라는 상징성을 무기로 도전장을 냈다. 서방천의 생태 하천 복원과 광주역 경제 중심지 도약을 공약하며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오주섭 전 광주경찰청 사무처장은 KTX 광주역 진입과 31사단 부지 AI 국방 클러스터 조성 등 굵직한 지역 현안 해결사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정책과 예산 전문가를 자처하는 조호권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시의회 의장 시절의 경험을

변호사 출신의 정다은 전 시의원은 '복구 제일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자영업자 반값 임대료와 광역 교통망 구축 등 민생 밀착형 행정 효능감을 강조하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시의원 시절 쌓은 행정 감시 역량을 결합해, 주민들의 실생활에 즉각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실속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젊은 여성 리더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정달성 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40대 혁신 세대의 실행력을 강조하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침수제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민주당의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내겠다는 야권의 도전도 거세다.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기초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와 권한 이양을 주장하며 지지층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일당 구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호남 전성기'를 이끌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3월 하나의 학교로 통합 개교하는 목포대와 전남도립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3월 출범을 앞둔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와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국립장원대-경남도립거창·남해대 등 통합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 통해 통합대학 관련 명칭과 직제 등이 변경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교직원에 대한 조치도 이뤄진다.

국립목포대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전남도립대와 통합

합을 제시, 2024년 특성화 지방대학에 선정됐다.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는 지역 간 격차가 큰 강원도 내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대의 강점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한 사례다.

'1도 1국립대' 혁신 모델로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벌대학)에 선정됐다.

국립장원대-경남도립거창·남해대는 창원국가산단을 뒷받침하는 '케이(K)-방산(D)-원전(N)-스마트제조(A) 연구중심대학' 혁신 모델로, 역시 2024년 특성화 지방대학에 선정됐다.

최고급 교육부 장관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대학들이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양보다 질"...광주AI사관학교, 교육생 지원 확대

3월 31일까지 모집...1인당 지원 예산 4800만원 투입

광주시가 인공지능(AI)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기존 틀을 깨고, 막대한 예산 투입과 소수 정예화를 통해 산업 현장에 진두지휘할 '최고급 마에스트로급 인재' 육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광주시는 현장 즉시 투입형 실전 인재 양성을 목표로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제7기 교육생 220명을 3월 31일까지 전국 단위로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0년 문을 연 이래 5년 동안 1528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며 76%에 달하는 높은 취업·창업률을 기록해 온 사관학교는, 이번 7기 과정을 기점으로 교육 시스템과 투자 구조를 전면 탈바꿈

시켰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압도적인 예산 투자와 간간했던 정원 관리를 통한 소수 정예화다.

현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총사업비는 종전 84억원에서 105억원으로 경증 났지만, 선발 인원은 330명에서 220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교육생 한 명에게 투입되는 예산은 2500만원 선에서 4800만원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이번 7기 지원 자격은 학력이나 전공, 거주지에 제약 없이 만 18~39세의 전국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전용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며 서류와 코딩 실습, 면접 등을 꼼꼼히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침수·도심재생 공약 격돌...불출마 '文心' 누구로 향하느냐 관심

민심·관전 포인트

광주역 개발·복지 강화 경쟁
청년 유입·정착 해법도 변수

복구는 현 구청장이 불출마하면서 민주당 내 8명의 후보가 난립, 당내 경선 과정이 판세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문인 복구청장의 '문심(文心)'이 누구를 향하는지도 표심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다수 후보가 나선만큼 정책 대결보다 가점 배분과 후보 단일화 등이 초반 승부를 가를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먼저 복구에서 침수·재해 대응 문제는 여전히 주민 불안을 키우는 핵심 사안이다.

광주를 비롯한 복구 일대는 반복되는 폭우와 침수 피해로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지방선

거에서도 중장기적 재난 대응과 침수 대책 마련이 핵심 공약으로 부상하고 있다.

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역시 민심의 큰 축이다. 노후화된 광주역 인근을 비롯한 도심재생 중심 구역인 임·중흥동 일대는 상권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KTX 진입, 청년 창업공간 조성, 구청사 이전 등 후보간 공약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생활 밀착형 과제도 민심을 흔든다. 패밀러랜드·우치동물원 활성화, 농산물시장 이전 등의 지역 기반 인프라 공약은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이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소득층과 고령 인구가 많은 복구에서는 촘촘한 복지정책 공약이 민심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유권자들은 기존 생애 주기별 통합돌봄과 취약계층 발굴형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단순한 '돌봄'에서 '활동·소득' 중심 지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청년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복지 전략도 유권자를 파고들 공약과제로 꼽힌다.

복구·장성 일대 첨단3지구와 관련해서도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이 민심 향방을 가를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국면에서 AI·모빌리티·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한 신산업 플랫폼 구축 전략이 확대되는 가운데 복구의 입지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방호 복구 주민자치위원장장은 "개인적으로 후보자가 많은 만큼 후보자가 걸어온 경력과 이력 등 인물론 중심으로 판단하고 싶다"면서 "복구 상습 침수 지역 안전대책, 광주역 인근 골목상권 활성화, 고품화된 복구 인구에 맞춘 청년 유입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내놓은 후보에게 관심을 가진 유권자들이 많은 것 같다"고 민심을 전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더 현대 광주' 2029년 준공...1년 늦어지나

설계 난도·안전 규제에 발목

'더 현대 광주'의 개점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1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더 현대 광주 건립 사업의 시공 측이 복구청에 제출한 착공계 확인 결과, 준공 예정 시점이 오는 2029년 5월경으로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그동안 시가 관리해 온 2028년 상반기 개점 목표보다 1년여 가량 늦춰진 일정이다.

공사 기간이 늘어난 데에는 세계적인 건축 설계 사무소인 '헤르초크 앤 드 뫼롱'이 제안한 독특한 고 복잡한 설계 디자인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건축물의 난도가 워낙 높다 보니 시공 과정에서 정밀한 공법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한층 강화된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규제와 엄격해진 시공 절차 등도 전체적인 공사 기간을 늘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초 2028년 개점을 목표로 관리해 왔으나, 제출된 착공계상에는 2029년 상반기 준공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설계의 난이도와 안전 관리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이 공기 연장의 주된 이유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다만 준공 시점이 반드시 개점 지연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착공계에 명시된 기간은 기준일 뿐, 향후 시공 과정에서 공정을 당겨 기간을 단축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 측은 개점 시점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